

#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을 때면 78년 전 모란봉공설운동장(당시)에서 열렸던 평양시화영웅준대회에서 민족의 영웅을 맞이한 끝없는 감격과 기쁨속에 각계층 인민이 터치던 만세의 환희성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다.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의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공설운동장은 사람바다를 이루고 운동장밖의 나무꼭대기들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있었는데 어떤 최승태와 울밑대목에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연단에 나서시자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는 군중들의 합성과 환희성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당시의 《평양민보》는 그날의 정경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평양의 력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찌기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는가? 이와 같이 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는가?...

... 특히 대회를 역사적으로 뜻깊게 하고 회중을 감동케 한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낳은 영웅 김일성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것이다. ...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김일성장군께서 그 림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흘렸다.》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의 조국개선이 었는가. 암흑에서 빛을 그리듯,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갈망하듯 그리도 애라게 기다리고 바라던 조국해방을 맞은 때로부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안타깝게 고대한 우리 겨레였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지리천대만고 멸시받던 민족의 운명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항일의 불바다만리, 혈전만리를 헤치신분이 바로 민족의 장한 아들이고 만고절세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었다.

조국해방은 우리 겨레의 피눈물진 속원이고 간절한 열망이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처절한 곡성과 함께 하루아침에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조선민족.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자 령강들에게 간절한 청원도 하고 백의민족 모두가 떨쳐나서 3.1인민봉기도, 6.10만세시위도 벌리었다. 그러나 하면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등박문에게 분노의 총탄도 날리었고 침략군의 우두머리들을 향해 항거의 수류탄도 던져보았다. 또 만주와 연해주의 넓은 들판에서 반일의병투쟁도 벌려보았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실패와 처절한 죽음으로 막을 내리었다.

조선독립은 정녕 이룰수 없는 꿈이란 말인가. 겨레가 독립에 대한 한가닥의 희망마저 잃어갈 때 간악무도한 일제는 더욱 악착스럽게 조선민족의 명줄을 조이었다. 《동조동군》, 《내선일제》를

떠들면서 조선사람들에게 일본어로 《죽어》로 사용될것을 강요하고 《창세기명》으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없애버리려 하였으며 3천리의 주요산맥과 명승지다의 《지혈》들에 굶는 류황과 기름을 쏟아붓고 쇠막대를 박아 넣어 우리 민족의 정기를 없애고 나아가서 조선민족자체를 영원히 말살해버리려고 발악하였다.

이러한 때 백두산에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총성이 높이 울리었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나라찾을 큰 뜻을 품고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 준엄한 혁명의 길에 오른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안도현에서 항일무장대조를 조직하시고 일제와의 전쟁을 선포하시었다.

그때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의 나라찾는 싸움의 총성이 높이 울리었고 우리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우리르며 따랐다. 인류력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이 유격전의 방법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침략군과 맞서 백전백승한 배를 알지 못하고있다.

항일의 전구들에 펼쳐졌던 그이의 지략은 천변만화하는 백전백승의 지략이었다.

단숨에 백리를 달려 적들을 혼란시키기도 하고 멀리 이동하는척하다가 적들의 코밑에 슬쩍 돌아감도 하며 동쪽에서 소리를 내며 서쪽을 치는가 하면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치기도 하는 전법, 적들의 한가운데 들어가 한바탕 휘저어놓고는 슬쩍 빠져나와 제놈들끼리 실컷 맞붙게도 하고 적이 대무력으로 달려들면 분산하여 치고 적이 분산하여 달려들면 집중하여 치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고

중잡을수 없게 변화무쌍하고 신출귀몰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기묘한 전법과 전술은 일제침략자들을 무서운 죽음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하기에 일제의 《도벌대》 대장을 하던자는 후날 이렇게 실토했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알수 없는 것이 눈에 력력히 있던 발자국들이 돌연히 없어진것이라든가, 강을 건너간것이 뻔한 사실인데 강 건너 언덕에는 발자취 하나 없는 그야말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속에 잤는지 알수 없는 신출귀몰하는 전법이다. 그것은 일 본군의 병사나 용병술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변화무쌍한 천재적 전법이었다.》

일제가 위대한 수령님의 신묘한 전법과 평할한 지략, 천재적 전략전술에 의해 만신장이 되어 비명을 지를 때 우리 겨레는

《김일성장군님은 축지법을 비롯 한 번신술, 장신술, 분신술을 마술음으로 쓰신다.》, 《김일성장군님은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나무 가지로 작탄을 만드시고 종이 한장을 띄우시고 물우를 건너다니시며 원수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신다.》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구세주로 끝없이 흠모하며 따랐다.

그 나날에 진행된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주체26(1937)년 6월 4일, 일제가 국경경비요충지로 중시하며 삼엄한 경계망을 펴던 보천보의 밤 하늘에는 화광이 충전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불의적이고 드세찬 공격앞에 일제통치기관들이 순식간에 절멸되고 불길기 치 솟아올랐던것이다.

그 불길은 조선민족은 죽지 않

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알려준 력사의 불길이었다.

항일혁명의 나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반일에국력량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어 일제와의 전진항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족을 조국해방의 기치밑에 튼튼히 결속하시기 위해 주체25(1936)년 5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국내는 물론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들과 일본본토에까지 조직을 급속히 확대하여 조국해방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시었다.

민족의 주체적합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에 조국해방작전을 개시할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온 겨레를 일제와의 판가리결전에 불려일으키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노도와 같은 진격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의 각지에서는 항쟁조직들이 무장폭동들을 일으키고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습격하였다.

정녕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 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은인이다.

하기에 해방의 감격이 차넘치던 그 나날들에 온 겨레는 목청껏 《김일성장군 만세!》를 외쳤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인민의 마음은 영생불멸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되어 삼천리강산에 울려 퍼지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암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달밭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오늘도 공화국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그이께서 세워주신 자주의 나라, 인민의 나라를 끝없이 빛내여갈 애국의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매진하고있다.

박 금 순



## 항일의 피어린 20성상

우리 겨레의 운명을 구원한 8.15조국해방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장강 20성상에 걸친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에 의해 마련된 민족사적사변이었다.

설한풍이 몰아치는 백두판야에서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무적항군》이라 불내는 일제의 100만대군과 피어린 혈전을 벌리시며 수많은 사신의 고비들을 피로써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이라는 노래의 구절과도 같이 우리는 그때 가는 곳마다에서 피를

흘리었다고, 우리앞에 놓인 한 치한치를 피로써 헤쳐나갔다고 뜨겁게 회억하시었다.

얼마나 피어린 길이었든가. 얼마나 험겨운 멀고 험한 혁명의 길이었든가.

적들의 끈질긴 추격과 치열한 전투, 벼속까지 얼어드는 혹심한 추위, 겁쳐드는 식량난,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전우들의 가슴아픈 희생...

결음결음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절대로 물러설수 없는 길이었다. 그것은 바로 이 길이 조국의 운명, 도란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혁명가로서, 인간으로

서 상상할수 없는 뼈저린 아픔을 이겨내시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며 어버이수령님 그렇듯 강인하게 헤쳐오신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가 있어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 아침은 밝아올수 있었다.

하기에 뜻깊은 8월, 조국해방을 안아오시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 헤쳐오신 피어린 20성상을 뜻있게 돌이켜보며 인민들은 그이께서 쓰거운 경의의 꽃송이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따라 천하제일강국을 이 땅우에 반드시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자 절 우

## 회고록과 더불어 빛나는 절세위인의 거룩한 한평생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민족과 더불어 회포에락을 나누시며 투쟁의 길을 헤쳐오신 절세의 위인의 영웅서사시적생애와 업적이 집대성된 불멸의 명저이다.

세상에는 삶의 진리와 좌우명에 대하여 쓴 도서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과 같은 고귀한 위인전서, 참된 삶의 교과서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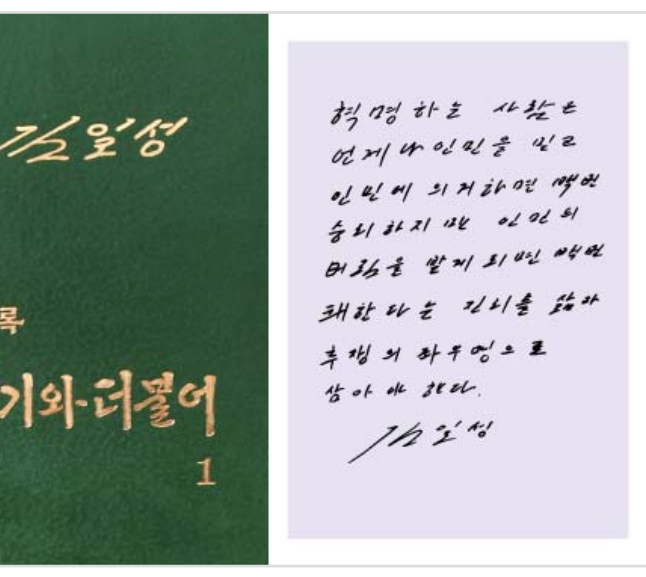
자신의 한생을 결코 남달리 특별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의 머릿글에 남기신 명제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불멸의 글발.

한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강 그리 바치시었지만 그 불멸의 로 정을 서술한 회고록마저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되새겨보면 위대한 수령님처럼 한평생 그렇듯 엄혹한 시련을 헤쳐온 위인은 없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력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령도자도 없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혁명의 길에 나선신 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쏟아부으신 심혈과 헌신의 력사는 그 무엇으



로써도 다 헤아릴수 없다.

그 길에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인간이 겪을수 있는 모든 고생과 슬픔, 피로움을 다 체험하시었고 위험한 사건의 고비도 수없이 헤쳐오셨다.

절세의 위인의 영웅서사시적생애가 서술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는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겪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 김일성원장님 단언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것이라는 깊은 뜻이 담긴 글줄들은 그대로 인민이 조국과 민족, 혁명을 위해 가 땅에 매어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고귀한 명언들이었다.

자신께서는 희생된 전우들의 명령에 비문을 쏘아박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고 하시며 떠나간 전사들의 생활세부까지 방불히

그리하여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에서 천만민족은, 아니 인류는 혁명가의 도덕의리는 어떠한 경지에 올라야 하는가를 삶의 교과서로 받아안는다.

회고록의 매 권, 매 장, 매 절은 그야말로 이런 친금같은 명제들과 동지애의 전설들이 가득히 실려있고 그 언제 펼쳐들어도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의 갈피들을 펼쳐며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것은 바로 그속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인간으로서 이겨내기 힘든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자욱이 가슴뜨겁게 안겨오기때문이다.

참으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민족과 후대들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바치시며 마련해주신 고귀한 유산이며 수령님의 거룩한 업적과 위인적품도를 깊이 체득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총서이다.

민사들이 공감하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은 지금 현시대 인간들의 필독도서로 되어 온 민족과 세계수익만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

만고절세의 위인의 영웅서사시적한생이 집대성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천만민족의 인민의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인생의 교과서로 영원한 생명력을 펼칠것이다.

김 춘 원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조국해방업적

## 민족의 구세주

뜻깊은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더더욱 사부치는 그리움과 끝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설레이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영영 잃을뻔 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된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비극이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창조하여야는 우리 민족은 비참한 식민지노예가 되어 치욕과 불행속에 몸부림쳤고 삼천리강

토는 일제의 군화발에 짓이겨졌다.

겨레의 운명이 칠성판에 울랐던 민족수난의 그 시절 꺼져가던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었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암록강을 건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의역으로 조직경도하시으로써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이 땅에 인민의 새세상을 펼쳐주시었다.

력사무대에서 사라질뻔 하였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울같은 그 언덕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민족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예와 행복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 땅에서 《조국해방 만세!》의 합성이 울린 때로부터 어느덧 78년이 되어온다. 하지만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언덕을 잊지 못하며 그이를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우리 겨레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더 불타고있다.

전도교정우당 중앙위원회  
심 영 철